

## 가르침을 사랑하는 카프인으로

허정명(나주교회)

전남교구 나주교회 36만 가정 허태홍 마리젤 이이 칼림림의 자녀 성화 63회 허정명입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앞으로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이제는 성화가 아닌 카프인 제가 감히 참여하며 보고드리게 되어 죄송함과 감사의 마음만 교차할 뿐입니다. 저는 '행복한 축복가정'을 이룩하신 제 부모님의 배경과 앞으로 제가 이룩할 '행복한 축복가정'을 위해 성화 시절에 참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르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1990년대에 아버지는 나주에서 어머니는 필리핀에서 천성경과 원리강의 말씀을 듣고 입교하셨습니다. 하늘부모님께서서는 저희 부모님께 하늘의 뜻을 내려주시어 36만 가정 축복을 통해 저를 비롯한 여동생의 결실을 맺어 주셨습니다. 참아버님의 문씨 성의 본토가 나주 남평이라는 점에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주와 연이 깊은 참아버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버지의 모습에서 참아버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후두암으로 일찍이 제 할아버지를 여의시고 6남매의 형제와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제 아버지는 고향에서 떠나 타지에서 무일푼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으셨지만 행복한 정착을 위해 굶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 나가시며 순탄하지 않은 세월을 버티셨습니다. 이는 참아버님이 원죄로 인해 어두워져버린 죄악 속에 빠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부모님의 부름을 받고 조상님으로부터 이어받은 슬픔과 원죄를 해원시키며 오직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라는 구원의 목적을 위해 겪으셨던 고난 속 인고의 과정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참아버님은 순탄치 않았던 어려운 세월의 인내를 통해 제 아버지는 지금의 어머니를 만나 가정의 평화와 행복한 축복가정을 이룩하는 승리를, 참아버님은 종교의 화합과 세계 평화 그리고 각계 각층의 통일의 선구자로서 운동을 실현시키는 승리를 이룰 수 있으셨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이 가셨던 길을 함께 하고자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시절까지 나주 왕곡의 외딴 곳에 위치한 작은 교회에서 그 믿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조상님의 원죄를 알고 이를 해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참사랑을 배우면서 해원의 전제가 되는 이해의 과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소한 모든 일부터 정성 활동을 들이면서 참사랑 사랑을 교회의 친구들과 마을의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다가감으로써 남을 이해하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르고 곧은 생각을 가지게 해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6학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저는 해마다 효정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되는 성화어린이 마인드 리더십 캠프에 참가하였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또래 성화 친구들을 보면서 설렘도 있었고 또 그 만큼의 걱정도 있었습니다. 처음 참여했던 4학년 캠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서 느낀 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어색했던 나머지 그 자리에서 회피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아무 말 못하던 저에게 같이

있었던 성화 친구들은 괜찮다고 격려해주었습니다. 그 이후 5학년과 6학년 때 곁에 함께 있었던 성화 친구들과 또 같이 프로그램을 참여하여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알아가면서 어느새 성화 시절을 함께하는 길동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길동무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중학교에 입학한 후, 저는 왕곡 교회에서 지금의 전남교구 나주교회로 이동하면서 그 동안 만나지 못했던 많은 식구님들과 성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화 친구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고픈 마음으로 성화 친구들과 함께 목포교회에서 일주일 수련을 받았습니다. 참혈통을 이어 받은 소중한 우리, 소중한 나를 아끼고 사회 속 여러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정성의 방법을 교육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성 63회라는 제가 존재하는 정체성의 요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련 기간 동안 참아버님의 말씀을 받춰한 ‘전 식구 원리강사화를 위한 원리강의안’ 책을 받아본 후, 내적인 무지와 외적인 무지에 대해 배우면서 인간, 우주, 신 그리고 선과 악의 여부와 물질세계의 근본과 법칙에 대한 무지를 심도 깊게 알아가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원리의 토대를 접할 수 있어서 막연하게 어렵게 느껴지기만 했던 원리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명랑운동회 때는 몸이 좋지 않아서 성화 친구들과 함께 참가하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목포 교회 어머님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걱정 덕분에 당시의 아픔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던 좋은 교육의 기회와 따뜻한 보살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기에 앞서 저는 청평에서 진행되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효정캠프에 참여하였습니다. 2박 3일의 효정캠프 기간 동안 유년기 성화가 아닌 청년기 카프가 되기 전 마지막 성화의 단계에서 절대순결과 하나님의 참사랑을 실천하는 전위대로써 갖추어야할 자세를 배울 수 있었고 천정궁에서 참부모님께서 저에게 “쓰다 남은 성품, 쓰다 남은 마음, 쓰다 남은 뜻을 가지고 바랄 때에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체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말씀카드를 통해 제게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말을 되새기며 그 의미를 잊지 않고 쓰다 남은이 아닌 가득 찬 모습으로 참부모님과 제 소중한 가족, 여러 성화 친구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부모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그 시기쯤에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가 통일교이지만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시지 않아서 그로 인해 자신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 참부모님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잃어버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조금이나마 교화시켜 주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 친구를 설득하여 여수 디오션 리조트에서 진행되는 효정캠프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은 친구에게 제가 먼저 다가가서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원리를 장황하게 설명하기 보다는 친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관점과 현재 나오지 않는 이유 등 여러 고민들을 들어주면서 친구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려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위로해주면서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신 화합의 의미를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1월 청평에서 진행되는 1406차 수련에 참가하였습니다. 효정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대해 제 자신에게 물어보고 참부모님께 질문을 드려보면서 나에게 있어서 효정이 가져다 주는 의미는 ‘세계를 통일하시고 원대한 업적을 이루신 천지인참부모님께서 단지 우리 성화가 지녀야 할 덕목으로만 강조하신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녀야 할

덕목의 말씀에서 그치지 않고 가정에서 또 개인에게 있어서 효정을 통한 정성이 이루어져야 행복한 축복,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앞으로의 행복한 가정의 존속을, 앞으로의 비전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물어보게 해 주시옵고 효정의 의미를 깨우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406차 수련 활동 중 아프리카 목사님이 강의를 해 주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강의를 통해 목사님이 느끼신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이야기와 앞으로 성화로써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조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종교의 원리와 사회의 원리는 결국에는 만물을 통일하신 참부모님의 원리에 종속된다고 말씀하시며 원리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라고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의의 마지막에 “They are behind me, They are in front of me. All my own, No more fear.”이라는 노래를 불러주시며 격려해주셨습니다. “그들은 내 뒤에 있습니다. 그들은 내 앞에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더 이상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노래 말씀을 통해 저는 주위에 언제나 함께인 가족, 형제, 자매처럼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식구님들과 성화 친구들과, 카프 선배들에게 두려움 없는 성화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용기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목사님, 목사님과의 만남의 기회를 성사시켜 주시고 성화가 가져야 할 지혜를 주신 참부모님, 고맙습니다.

2018년 8월,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의 역사를 알고자 하는 생각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시험을 준비하면서 수능과 공무원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사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데 있어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자격증 수단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참부모님의 원리에 접근하는데 있어, 참아버지와 제 아버지의 나라인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내적으로는 하늘을 공경하고 자연을 사랑해온 효정의 심정문화를 배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구나 다문화 국제가정으로서 한국에 얽힌 다양한 역사의 배후를 알게 됨으로써 원리강의에서 설명하는, 하늘이 관심 갖고 보호해 온 섭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간절했던 이유 덕분에 저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고급 1급이라는 승리로 보답 받을 수 있었고 원리속 효정의 심정문화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길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참부모님.

2019년 1월 ‘Bye SUNGHW A Hi CARP’라는 주제로 전남의 성화들이 전남교구에 모여서 비전 2020을 위해 카프로서의 첫발걸음을 내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화의 길과 카프의 길을 먼저 걸어갔던 사무장님께서 포기는 또 다른 선택이고 그에 따른 책임감은 온전히 자기 자신이 져야 하기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앞으로 원리를 공부하는 카프로서 사회에서 활동하는 성인으로서 가져야 하고 추구해야 할 마음가짐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공감할 수 있었고 가슴에 와 닿았던 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장님. 그리고 훌륭하신 사무장님을 전남교구로 모시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부모님.

수련 활동 속 심정카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같은 성화의 위치에서 사회로부터 받았던 시선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성화 친구들을 만나면서 대학과 취업 그리고 참부모님과 하늘부모님을 주제로 서로가 겪었던 경험담과 고민, 심정을 이야기하고 공유함으로써 같은 형제라는 이름 아래에서 함께 아파하고 서로의 짙을 덜어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입장에서 그 사람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역할만 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참혈통을 지닌 같은 공감대를 가진 이제는 성화가 아닌 카프 친구들에게 가슴 한편

에 쌓아두었던 고민들을 펼쳐내어 말하고 위로받는 입장이 되어 보니 진정한 친구와 진정한 참사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실 된 마음으로 서로의 삶을 덜어주시고 곁에서 함께 아파할 수 있도록 따뜻한 성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축복가정’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참부모님께 받은 가르침의 여정들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렴풋이 복기해 보면서 저는 가르침 속 생각의 갈림길에 놓여있을 때 언제나 제 자신과 더불어 참부모님께 질문을 던지며 끊임없이 물어보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과연 이 가르침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불러올지 끊임없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두려움을 회피한 적도 있었고 성격이 소심하다는 핑계로 제 자신을 낮추며 가르침의 의미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에 이르러서야 진실 된 마음과 진실 된 사랑으로 그 가르침의 의미를 실천하기 위해 인내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자세와 생각을 형성할 수 있었던 전제는 참부모님께서 성화 시절에 사회의 사탄 무리와 어울리지 않게 그들의 유혹에 휘말리지 않게 늘 곁에서 도움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저를 보듬어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시련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땐 따스한 햇살처럼 위로의 손을 뻗으시며 저를 격려해주시고 구원해주시기 위해 제시하셨던 한없는 가르침 덕분에 지금 제 부모님의 참부모님의 하늘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참자녀가 될 수 있지 않았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는 카프가 된 시점에서 문득 제 어머니가 카프의 경험자로서 대학생 카프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카프가 됨으로서 전도 활동과 여러 활동들을 해 나가야 하니까 그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성화 때 만나보지 못한 더 다양한 친구들과 활동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깐 그냥 걱정하지 말고 재밌게 즐기면 돼.” 저는 이러한 제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위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며 사람들에게 다가가고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부모님 앞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참부모님. 제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앞으로 이겨내야 할 길, 앞으로 승리해야 할 길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길들은 제가 가는 곳마다 저를 맞이하며 저에게 회노애락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앞으로 이룩할 ‘행복한 축복가정’을 위해 제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참아버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고난에 무릎이 꺾이는 한이 있더라도 굴복하지 않고 눈물 흘려가며 이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축복을 통해 행복한 축복가정으로서의 한 걸음을 내딛고 값진 이야기를 써 가며 한없는 은사에 보답할 것입니다.

만물의 통일과 축복을 위해 영계에서 현세에서 지금도 전심전력으로 투입하고 계시는 참아버님, 참어머님. 지금껏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가정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위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참부모님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꼭 승리하겠습니다!